



목포 남항, 친환경선박 메카

친환경연료추진연구센터 유치·지역인재 양성

관광, 수산식품과 더불어 목포시의 3대 미래 먹거리 산업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정부와 전라남도의 정책과 맞물려 탄력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

목포시는 목포신항과 대양산단을 중심으로 조성하고 있는 해상풍력산업 전진기지과 더불어 목포남항에는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초 전기추진 차도선 개발

첫 번째 사업으로 올해 4월 남항에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사업이 착수에 들어갔다. 2024년까지 5년 동안 약 45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국비 72억원을 포함, 123억원을 확보하여 차도선 개발과 운용인프라 설계를 추진 중에 있다.

전기추진 차도선은 기존의 디젤 엔진 대신 전기에너지를 활용해 소음이나 진동이 적고, 매연·미세먼지가 배출되지 않는다. 특히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배터리)을 차량형태로 제작, 해양 분야에 적용한 세계 최초의 전기 선박으로 우리나라 연안을 운항하는 차도선에 우선 보급하고, 차후 어선 등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선박 기술 개발 인증·실증 종합체 구축

후속 사업으로 해수부, 전남도와 함께 2021년부터 5년간 총 494억원 규모의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해상 테스트베드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기존

LNG에 무탄소 연료인 수소나 암모니아를 혼합한 새로운 친환경 연료시스템 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기술을 해상 테스트베드를 통해 실증하는 등 세계적인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할 방침이다.

◆차세대 친환경 대체연료 추진 선박 기술고도화 협력 추진

3단계 사업으로 차세대 친환경 대체연료를 이용하는 선박의 보급, 확산과 기술고도화를 위한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기추진 차도선 개발과 친환경 선박 해상 테스트베드, 친환경 대체연료 추진선박 기술고도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목포권은 남항을 중심으로 친환경선박 핵심기술의 선제적 개발·보급·확산 뿐 아니라 해상테스트베드를 통해 실증·인증을 거치는 명실상부한 친환경 선박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예정이다.

◆친환경연료추진연구센터 유치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준비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산하 친환경연료추진연구센터가 남항에 들어선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현재 전국에 대전 본원을 비롯한 부산, 고성, 거제에 4개의 지역거점이 있으며, 목포 남항은 친환경선박 산업을 육성하는 새로운 연구거점이 된다.

또한, 친환경선박 시장에 대응할 핵심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체 수요 맞춤형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캠퍼스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는 32개 정부 출연 연구소가 공동 설립한 대한민국 유일의 국가연구소대학원이다. 친환경 선박 과제 추진과 함께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2021년 9월 학과 개설 및 2022년 4분기 목포캠퍼스 개원을 목표로 목포에 특화된 친환경연료추진시스템 전공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친환경연료추진연구센터가 중심이 되는 UST 캠퍼스가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남항을 중심으로 서남해안 권역을 친환경 대체연료 기술 개발과 보급, 확산을 위해 전라남도과 함께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도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되면 친환경선박 관련 신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 및 사업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기존의 전기차, 수소차 등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이 활성화 되는 구조와 마찬가지로 목포 남항에는 미래형 친환경 선박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관련 기업 투자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포신항과 대양산단을 중심으로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을 위한 전진기지과 함께 목포남항에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목포는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말하며, "전남의 블루에너지와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과도 일치하는 만큼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목포 미래 먹거리를 위한 3대 전략산업이 빠른 속도로 완성될 것이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 기자

영암읍, '영암군 재난생활비' 원스톱 서비스 실시

소득 상관없이 전 주민 대상

영암군에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전 주민에게 주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7.월30일부터 9월 11일 기간동안 영암군 재난생활비를 신청받는다.

지급기준일(2020. 3. 29.)부터 신청 시까지 영암군(주소지 관할 읍면)에 주소를 둔 영암군민(결혼 이혼자를 포함)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인당 10만원까지 수령하게 된다.

특히, 영암읍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수단이 없으신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영암농협과 협의하여 '영암군 재난생활비' 원스톱(one-stop) 창구를 마련하여 신청·접수 받기로 했다.

각 마을별 방문 집중 신청기간을 지정 7월30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 및 수령증 발행, 상품권 수령을 읍사무소에서 처리하여 주민들

의 편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영암읍에서는 "영암농협과 협업을 통해 영암군 재난생활비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어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주민의 재난생활비 수령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영산강~승달산 만남의 길 개통

도로 준공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성장동력 창출 기대



무안군은 4년간 국비 179억원을 지원받아 영산강~승달산 만남의 길 공사를 완료해 지난 27일 준공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 길은 도로폭 8m로 청계면 청수리(국도 1호)부터 몽탄면 대치리(군도 34호)까지 총 8.7km이며, 포 남항에는 미래형 친환경 선박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관련 기업 투자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인 6개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남의 길은 무안군의 50년 속원으로 몽탄과 청계면 두 지역의 소통과 협력의 의미를 넘어 먼 소재지와 농공단지, 목포대학교 등 있는 교통과 물류의 교두보 역할과 승달산 등산로, 영산강 강변도로, 분청사기명장 전시관, 식영정, 느리지 한반도 공원 등을 있는

녹색관광벨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객과 도로 이용자들은 중간 중간 쉼터와 정자가 배치된 시속 30km의 구불구불한 도로를 달리며 느낌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

또한 이 도로는 강원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관광객들에게 주변 등산로와 연계된 생태자연도 1등급의 숲과 머물며 사색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무안군은 만남의 길에 맨발 자압로, 숲 생태공원, 야생식물 탐방로, 약초식물원, 만딧밭이 별보는 숲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 도로를 자연순응·녹색체험형 도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향후 영산강과 승달산, 갯벌해안을 연계한 등산, 걷기, 자전거, 트레킹, 마라톤, 오토캠핑 등 다양한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며, "만남의 길은 강, 산, 바다를 하루에 경험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관광명소로서 우리 군의 새로운 관광 기반을 창출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광군, 산업부 e-모빌리티 공모사업 2건 선정

대마산단에 318억 투입

영광군은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e-모빌리티 전원시스템 고안전성 평가기반 구축사업' 전라남도테크노파크와 이모빌리티협회, 순천대, 목포대가 참여하여, 이모빌리티 핵심 부품인 배터리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2022년까지 총 193억 원을 들여 평가기반센터 건립 및 배터리 안전성 시험법 개발과 시험평가를 진행한다.

군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대마 전기차산업단지 일원에 총사업비 318억 원을 투입하여 e-모빌리티 핵심부품인 전원시스템과 수소연료전지 관련 연구시설을

집적화할 계획이다.

이번 'e-모빌리티 전원시스템 고안전성 평가기반 구축사업'은 한국자동차연구원 주관하고 전남 테크노파크와 이모빌리티협회, 순천대, 목포대가 참여하여, 이모빌리티 핵심 부품인 배터리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2022년까지 총 193억 원을 들여 평가기반센터 건립 및 배터리 안전성 시험법 개발과 시험평가를 진행한다.

또한, 소형 수소연료전지 기반 운송기기 산업 진흥을 목표로 130

억 원 규모의 'e-모빌리티 소형 수소연료전지 실증센터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관하고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 순천대학교, 전자부품연구원이 참여하여, 수소 연료전지 전문 시험센터 건립과 1~5kw급 소형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탑재한 e-모빌리티 실증을 통해 데이터 분석 및 피드백 R&D수행한다.

영광=서희권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수많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수많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